

대 덕밸리에 메카톤급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추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제4산업단지내 부지에 100여 억 원을 투입, 한 건물에서 모든 기업활동이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이같은 결정은 새롭게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매입을 원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많아 이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 대덕밸리 기업들의 탈(脫)대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트여질 전망이다.

대덕밸리에 새롭게 들어설 이 아파트형 공장은 기존 4공단에 있는 벤처집적시설인 '장영실관'과 '다산관'의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7000여 평에 이르는 임대공장과 주차장 1300평을 건립해 62개 IT기업과 51개 BT기업을 유치, 총 113개 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할 방

脫대덕 막을 아파트형 공장 생긴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침이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크게 가·나·다동 3개동으로 구성되며 각각 2000~2500평 연면적 규모에 5층 건물로 지어진다. 이중 가동 1, 2층에는 근로자 복지관을, 나·다동 1, 2층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간은 20평형~100평형의 규모별 기업 입주 공간으로 나뉘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전시는 지역 벤처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따른 입주환경 변화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공간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2008년까지 대덕테크노밸리와 제3산업단지 등에 첨단업종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총 517개 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덕밸리의 한 벤처기업인은 “그동안 공간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마련된다니 잘된 일”이라며

신제품 신기술



림스테크널러지 '생각, 눈빛'만으로 사물 움직이는 기술 개발

대덕밸리의 림스테크널러지(대표 임종진)는 생체신호인 뇌파(EEG)와 눈동자 움직임(EOG)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물을 움직이는 뉴로기술을 적용한 '뉴로헤드셋'을 선보이고 시연회를 가졌다.

실제 시연회에서는 시연자가 '뉴로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고 헤드셋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칩이 장착된 장난감 자동차 RC카를 자유자재로 작동시켰다. RC카는 시연자의 뇌파에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 상하좌우 및 각도별로 움직였다.

'뉴로헤드셋'은 인간의 뇌파와 눈동자 움직임의 생체신호를 검출해 그 데이터를 무선RF(고주파)로 전송할 수 있는 무선통합형 장치. 이 장치에는 사람의 집중도와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LED가 장착돼 있어 사용자의 뇌파상태를 체크하며 집중력 훈련도 할 수 있다.

회사측은 이 헤드셋을 게임분야에 이용할 경우 장시간 게임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며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뇌파중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α파'와 집중력이 높아졌을 때 나오는 'β파'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 향후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헤드셋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건식능동센서(Dry Active Sensor)도 함께 개발해 특허 출원 중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장난감 완구시장을 비롯한 게임, 교육, 국방, 의료, 스포츠, 로봇산업, 재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임종진 대표는 “제품이 나오기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생물학부의 이론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미국 진출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